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창조경제 혁신센터

2017년 6월 8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8(목) 오전 0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7. 6. 8(목)	담당부서	전자부품과, 섬유세라믹과, 전자전기과, 조선해양플랜트과, 기업정책팀
담당과장	전자부품과장 안세진(044-203-4270) 섬유세라믹과장 양병내(044-203-4290) 전자전기과장 김종주(044-203-4340)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감찬(044-203-4330) 기업정책팀장 이한철(044-203-4830)	담 당 자	이태욱 사무관 (044-203-4275) 이응대 서기관 (044-203-4294) 박상호 사무관 (044-203-4344) 김세진 사무관 (044-203-4335) 조정희 사무관 (044-203-4833)

5개 기업,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신규로 승인받아

- 사업재편 승인기업 누적 37개 회사-

- 전선, 반도체 소재 업계 사업재편승인 '첫 사례'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산업통상자원부**는 6. 7.(수) 공동위원장인 정만기 제1차관과 정갑영 연세대 전총장 주재로 제1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아이티씨(전선), 엘지(LG)실트론(반도체 소재), 신풍섬유(섬유), 영광(조선기자재), 원광밸브(조선기자재) 등 **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

○ 이에 따라, 현재 **누적 승인기업은 총 37개사**로 늘어났다.

□ 이번에는 **제조업 분야의 전선, 반도체 소재 업종**에서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첫 사례'**가 나왔다.

○ 기존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3대 공급과잉 업종 이외에 **제조업 전반으로 자발적 사업재편 분위기 확산하고 있다.**



○ **전선업종**은 지난 4월 **업계 내 '전선산업발전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발족해 사업재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전선업종의 첫 사업재편 승인을 계기로 향후 동종업계에서 사업재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반도체 소재 업종**은 이번에 **웨이퍼 분야의 사업재편**을 추진했다. 기술발전으로 **수익성이 약화된 분야(소구경 웨이퍼)는 줄이고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대구경 웨이퍼)에 투자**해 향후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승인한 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이티씨** 전력·통신케이블 등 **전선 케이블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안산 소재 중소기업**

- 기존 공장(안산) 매각 후 회사를 이전(춘천)하면서 **범용 케이블 생산능력은 줄이고 고부가 제품인 고압 케이블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

○ **엘지(LG)실트론** 반도체의 주요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연구개발·제조·판매**하는 **구미 소재** 회사로 **대기업 집단(LG그룹)의 계열회사**

- **생산설비 용도 전환 및 일부 매각을** 통해 **150mm 반도체 웨이퍼 사업은 철수**하고,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200, 300mm 증설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사업 전환**할 계획

○ **신풍섬유** **아웃도어용 스판덱스 직물 및 기능성 섬유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대구 소재 중소기업**

- 의류용 생산설비 매각과 산업용 생산설비 매입을 통해 **아웃도어용 원단생산은 축소**하고 **로봇, 소방분야에서 활용되는 산업용 원단 생산은 확대**할 계획

○ **영광** **선박블록** 및 **플랜트설비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울산 소재 중소기업**

- 회사가 보유한 국내공장(울산소재, 2개) 중 선박블록 생산 전용공장을 일괄 매각(부지·건물·설비 등)해 **조선기자재 생산**은 철수하고 **가열로·수소가스 발생장치 등 플랜트 설비 생산을 확대**할 계획

○ **원광밸브** **조선기자재인 선박용 밸브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 **선박용 밸브생산은 축소**하고, 신사업으로 **육상플랜트용 소화전 밸브 및 초저온 밸브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 이를 위해 **기존의 생산설비 일부를 개조하고 추가 생산라인을 신설**할 예정

□ 한편, 현재까지 승인된 37개 기업을 분석해 보면

○ 중소기업 27개, 중견기업 4개, 대기업 6개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 조선·해양플랜트 15개, 철강 6개,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24개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

* (기타: 13개) 기계 4개, 섬유 2개, 태양광셀 1개, 유통·물류 3개, 엔지니어링 1개, 전선 1개, 전자부품 1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조정희 사무관(044-203-4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